



장마 오기전에... 분주한 양파 수확 17일 오후 무안군 현경면의 한 노지에서 농민들이 캐낸 양파를 서둘러 망에 담고 있다. 양파는 비를 맞게 되면 노균병이나 시들음병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장마 전에 수확해야 한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8일 새벽부터 광주·전남에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대통합위 출범... 위원장에 한광옥

새 정부 113일만에...위원 18명, 호남출신 7명 가장 많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71·사진)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 국민대통합위가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며 한 위원장과 소설가 김주영, 영화 감독 배창호, 생물학자인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등 18명의 위원 명단을 일괄 발표했다. 18명의 위원 중에는 임항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중앙회 총재와 김현장 광주포럼 상임이사 등 호남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인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대통합위원회는 인사과등과 북한발 안보위기 등으로 출범이 미뤄져 오다 새 정부 출범 113일 만에야 비로소 첫발을 내디뎠다. 이 수석은 위원회 출범과 관련,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3대 지표로 제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를 설치하는 등 국민대통합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한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과 옛 민주당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지난 18대 대선과 정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해 대선구인 100% 대한민국의 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 한 위원장과 함께 선임된 17명의 위원은 국민대통합이라는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감안해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사람들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와 특별위를 두게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민대통합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잇따른 국제행사... 창피한 대중교통

광주시 시내버스 매년 300억 쏟아붓고, 택시요금 올려줘도 서비스는 후진

#1. 최근 시내버스 급남 57번 여성 승객은 운전기사로부터 '참 똑똑한 X'이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광주시에 신고했다. 버스가 엉뚱한 정류장에 정차한 사실을 알려줬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기사는 급남 57번을 직접 타봤다. 양산지구에서 종점인 문화전당까지 가는 1시간여 동안 급정거, 급출발은 셀 수 없을 정도였고, 70대로 보이는 노인승객은 '무서워서 못 타겠다'고 항의하며 도중에 내리기도 했다.

광주시가 '국제도시'를 목표로 대형 국제행사를 잇달아 유치·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불친절한 '후진국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광주의 첫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매년 3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중이지만, 일부 운전기사의 불친절 난폭 운전은 여전하다. 시 관련 부서에는 월 평균 100여건의 대중교통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전과 비슷한 수치라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이다. 택시도 올해 초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약속했던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를 높이겠다고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친절교육과 업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고 있으나, 운전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회사에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회사는 자체 친절교육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친절 운전자의 대중교통 운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의 택시 내 카드단말기 장착률도 저조해 외지방문객들과 다름도 빈발하고 있다. 광주의 택시 카드단말기 장착률은 전체 8221대 중 3320대로 40.4%에 그치고 있다. 장착률이 낮다 보니 이미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택시들도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다. 반면 대구(59.4%)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 인

전, 대전, 울산의 장착률은 100%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택시 카드결제율은 53%에 이른다.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해 말부터 시 예산부서에 3억5000만원(1대당 10만원)이면 모든 택시에 카드단말기 장착이 가능하다는 수차례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나,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재정을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택시 카드단말기 미설치로 지난 13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JCI(국제청년회의소) 아시아-태평양 대회 참가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광주 지하철은 승객 안전 확보와 역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스크린도어(안전문) 설치율이 19개역 중 11개로, 57.9%에 불과하다. 서울과 대전 지하철의 설치율은 100%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여름방학전 개관

광주시 운영비 40% 부담...이달중 관장 선임·직원 채용

완공 후 7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을 올 여름방학 전에 개관해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6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관장을 선임해 다음달 중순에 개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국립광주과학관은 국립인 만큼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단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과학 꿈나무들을 위해

운영비 중 시비 40%를 투입, 초·중등학교 여름방학 전까지 개관토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관장을 선임하고, 법인등기와 직원채용(37명)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대구시(국립대구과학관)와 공동으로 대전과 과천국립과학관처럼 순수운영비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운영비의 40%를 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광주시는 올 초 대구시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데다 현재 국립부산과학관을 짓고 있는 부산시도 정부안에 동조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광주시는 일단 과학관 개관 연기는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올하는 정부안에 따라 연간 순수운영비(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 등) 45억원 가운데 예상 수입(13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의 40%인 13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국립시설에 매년 13억원 안팎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대구·부산과 공동으로 정부에 전액 국비 지원을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 복구 오통동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은 844억원을 들여 지난 2007년 착공해 6년 만인 지난해 10월 완공됐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325㎡ 규모에 빛과 예술관, 생활과 미래관, 어린이관, 기획전시실, 과학마당, 4D영상관, 천체투영관, 중앙홀(빛고을탑) 등 36개 주제 151개의 전시품이 설치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모집

- 모집분야: 행정학과(공공행정전공, 지치행정전공)
- 모집인원: 00명 (광주반, 여수반, 남양반)
- 전형방법: 면접고사
- 원서접수: 2013. 6.17(월) ~ 7.2(화)
- 문의: TEL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 피부 속부터 밝히면 가질 수 있어요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뮬러가 조영인자를 폭발적으로 켜주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뮬러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헤라만의 앞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이 백기 등성 주름개선기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효성분확인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